

#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오 동 근\* · 여 지 숙\*\*

## 〈목 차〉

- |                                       |                |
|---------------------------------------|----------------|
| I. 서론                                 | 1. 보조표의 재전개 방안 |
| II. 임의규정의 유형 분석                       | 2. 주류별 재전개 방안  |
| 1. 임의규정의 의미                           | IV. 결론         |
| 2. 임의규정의 유형                           | 참고문헌           |
| III.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br>임의규정의 적용 시안 | Abstract       |

## I. 서 론

듀이십진분류법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라 약칭함)은 1876년 Melvil Dewey에 의하여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96년에는 21판이 나온 바 있다. DDC는 현재 전세계 135개국 이상의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문헌분류법이다.

그러나 DDC는 원래 영어권 내지는 구미(歐美)의 도서관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 2 圖書館學論集(第 29輯)

하여 만들어진 분류법이기에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그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DDC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도서관들은 분류작업의 편리를 위해 한국과 관계되는 항목들을 자관(自館의)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쓰는 예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쳐 쓰기 방식을 채택한 분류표로는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연대미상),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55)<sup>1)</sup>, 국회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59)<sup>2)</sup>,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3)<sup>3)</sup>,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6)<sup>4)</sup>,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69)<sup>5)</sup>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식 합의된 고쳐 쓰기 및 전개표가 없는 상태로 개개의 도서관에서 필요에 따라 분류표를 재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표의 기호의 뜻을 고쳐서 쓰는 문제에 대하여 DDC에서는 “원표의 기호는 어떠한 명백한 지시 없이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끼워서 쓰지 말 것”<sup>6)</sup>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DDC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임의규정(options)을 마련하고 있다. 임의규정은 도서관의 장서에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표와 보조표에 제시된 기호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들은 이 임의규정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DDC를 사용하는 한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DDC에서 재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임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전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

- 1) 김중환 역편, **듀이십진분류법(축소 제7판)**, 서울, 국립도서관, 1955.
- 2) 국회도서관 편, **듀이十進分類表: 主類表, 主綱表, 主目表**, 서울, 국회도서관, 1959.
- 3) 경북대학교 도서관 편, **한국식 전개를 가미한 듀이십진분류법 및 상관색인**, 개정표준 15판, 대구, 동도서관, 1963.
- 4) 이재철, **한국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쓰기표**, 미고정판(상),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6.
- 5) 천혜봉, 박영준 공편, **동서용 D.D.C.(16판) 전개표=Expansion of D.D.C. (16th ed) for Oriental Materials**, 서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69.
- 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vol. 1 N. Y., Forest Press, 1971, p. 95.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본표를 근거 없이 변경하지 말 것을 주장한 DDC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며, 각 도서관이 동일한 DDC를 사용하면서도 변경 부분의 경우는 그 기호가 서로 달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DDC에 제시되어 있는 임의규정을 활용한 기호를 사용한다면 각 도서관들이 정확한 지식에 따라 일관성 있는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DC의 최신판인 21판을 중심으로 임의규정을 그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 이를 한국의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DDC의 임의규정이 한국의 실정에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 사용하는 임의규정이란 용어는 영어의 “Options”에 대한 번역어로, “표준기호법의 우선적인 처리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장서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본표와 보조표에서 제공되는 표준 기호법에 대한 대안(代案)”<sup>7)</sup>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통일된 명칭이 없이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김명옥<sup>8)</sup>은 “양자택일”, 김진우<sup>9)</sup>와 이세원<sup>10)</sup>은 “선택조항”, 김태수<sup>11)</sup>는 “임의의 장치”, 남태우<sup>12)</sup>는 “옵션”, 윤희운<sup>13)</sup>은 “양자택일 주(註) 또는 별법주(別法註)”, 오동근<sup>14)</sup>과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sup>15)</sup>은 “임의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vol. 1 op. cit., p. lxii.

8)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86, p. 68.

9) 김진우, “분류표에 설정된 분류주기의 제유형”, **도서관**, 45권, 제4호(1990.8), p. 45.

10) 이세원,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전개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p. 58.

11) 김태수, “듀이십진분류법”, **도협월보**, 제18권, 제5호(1977.6), p. 28.

12) 남태우, “DDC 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12), p. 97.

13) 윤희운, **정보자료 분류론**. 대구, 태일출판사, 1998, p. 102.

14) 오동근, “DDC의 새로운 이해(III) : 분류법의 실제”,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5·6), p. 44.

15)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3.

## II. 임의규정의 유형 분석

### 1. 임의규정의 의의

DDC에서 임의규정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12판이며, 형식상으로 그 틀을 확립한 것은 17판이다. 내용상으로는 18판에서 그 기본적인 골격이 세워져 21판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변형을 가하고 있다.

DDC에서 임의규정은 주기(註記)중 하나로 제공된다. 분류표에서 주기는 분류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나 그 항목에 속하는 범위, 분류항목의 명확성 및 항목간의 관계성, 또는 항목의 세분을 위한 지시나 전개 등에 관해 분류항목 하에 설명되어 있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기란 표목 이외의 사항으로 표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인용 등을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sup>16)</sup> 이와 같이 주기는 표목만으로는 분류하기 힘든 항목 아래에 설명되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주기에 설명되는 임의규정은 원괄호로 묶어 표시된다. 전(全) 항목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은 해당 항목의 맨 끝에 나타나며, 해당 항목의 특정 지시 사항에 대한 임의규정은 해당 주기 아래에 한 칸 들이켜 표시한다. 임의규정에 의한 어떤 기호들은 본표와 보조표에 열거되며 기호칼럼에 괄호로 묶여 표시된다.<sup>17)</sup>

DDC가 비록 그 다양한 장점 때문에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 문화권 특히 미국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법이기 때문에 서구문화, 기독교 등에 항목배정이 편중되어 있다.<sup>18)</sup>

DDC의 보완방법은 다양한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DDC의 이용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첫째, 북미대륙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역사,

16) 김명옥, *op. cit.*, p. 65.

17) 오동근, *op. cit.*, p. 45.

18) *Dev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 vol. 1. N. Y., Forest Press, 1965, p. 55.

지리, 문화 등을 분류표상에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DDC 16판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구분표와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 등의 도입은 이들 국가들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류하게 되었다. 둘째, 서양서가 전체 장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도서관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편집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sup>19)</sup>

많은 분야의 분류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앵글로색슨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 이외의 것, 즉 아프리카나 동양의 종교, 관습 등에 의하여 정리될 자료를 많이 갖춘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적인 장치가 도입되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주제는 원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의 맨 마지막에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숫자와 공식적인 의미를 갖지 않은 확정된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주제를 할당하고 있다.<sup>20)</sup>

한국에서 D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자관의 필요에 따라 재전개한 분류표를 쓰는 예가 많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KDC나 NDC 등과 비교·검토하여 도서관 나름대로 동양부문을 고쳐서 쓰고 있다. 그러나 분류표에 제시된 임의규정을 사용하게 되면 DDC 편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분류표의 지시를 근거로 하여 표준적인 재전개를 통해 개개의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임의규정의 유형

21판의 임의규정은 그 내용 또는 목적과 형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각 유형별로 임의규정의 유형을 내용이나 목적, 형식에 의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 김승환,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논문집*(강남대), 제16집(1986), p. 602.

20) 김태수. *loc. cit.*

1) 내용 또는 목적에 의한 임의규정의 유형

임의규정은 그 내용 또는 목적에 따라 ①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것, ②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기 위한 것, ③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 ④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것, ⑤ 그 밖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sup>21)</sup>

①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분류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된 미국과 서양 주요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있다.

337.3-9의 임의규정은 Table 2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호를 구성하는 대신에 강조하려는 관할구역에 기호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게 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국제 관계는 337.44073에 분류되어야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337.73044에 분류할 수 있다.

337.3-9 Foreign economic policies and relations of specific jurisdictions and groups of jurisdictions

(Option: Give priority in notation to the jurisdiction or group of jurisdictions requiring local emphasis, e. g.,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class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 337.73044)

또한 060 일반 기관(General organizations and museology)에서 061에 북미의 일반기관 및 박물관학(Gener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을 두고 있다. 061.3-9를 미국에 배정한 반면, 068에 기타 지역의 일반기관(General organization in other geographical areas)을 두었다. 061에 있는 임의규정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일반기관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기호를 사용하게 했다. 이 경우 061에 있던 북미의 일반기관은 068.7로 옮겨진다. 070 잡지 및 신문(journalism and publishing)에서도 이와 동일한 임의규정이 제공된다. 다른 점은 임의규정 B

---

2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Vol. 1 op. cit., p. liv.

에서 070아래에 신문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의 예 (일부)

주	체	Prefer	Options		
			A	B	C
Foreign economic policies and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337.44073	337.73044		
General organizations in a specific country		061~069	06L	061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a specific country		071~079	07L	알파벳순배열	071

이와 같이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은 분류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을 강조하려 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각 국가에서 자국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②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는 임의규정은 특정 그룹을 강조하거나 간략화된 기호를 주기 위하여 제공된다. Table 5의 -1-9와 -1에 있는 임의규정은 각각의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9에 있는 임의규정은 강조할 인종·민족·국가군에 대하여 문자를 사용하여 -1보다 앞에 분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1-9 Specific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Option :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group, place it first by use of a letter or other symbol, e. g., Arabs -A [preceding -1]. Another option is given at -1)

## 8 圖書館學論集(第 29輯)

-1에 있는 임의규정은 -1에 강조할 각각의 인종·민족·국가군을 두고, 이 기호에 있던 북아메리카 민족은 -2에 통합되도록 지시한다.

### -1 North Americans

(Option :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group, e. g., Sinhalese, class it in this number; in that case class North Americans in -2. Another option is given at -1-9)

### ③ 특정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각각의 언어에 대한 강조는 분류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특히 400s와 800s에서 많이 나타난다. 410에서는 400에 언어학(Linguistics)을 옮기도록 제안하고 그리고 나서 강조하려는 언어에 대해서는 410의 기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 410 Linguistics

(Option :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a specific language, e. g., Russian, class it here and add to base number 41 as instructed under 420-490; in that case linguistics in 400, its subdivisions in 401-409, standard subdivisions of language and of linguistics in 400.1-400.9. Option B is described under 420-490)

유사하게 800류에서는 각 언어로 된 문학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있다. 810-890에서는 각 언어로 된 문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임의규정이 제공된다. 각 언어로 된 문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임의규정 A는 810에 그 문학을 분류하게 하고, 임의규정 B는 문자를 분류기호에 추가시켜 810보다 앞에 분류되게 지시한다.

그리고 031 영어로 된 미국백과사전(American English-language encyclopedias)에서 임의규정 A는 03 다음에 문자를 써서 031앞에 분류되게 지시한다(예 : Arabic-language encyclopedias 03A). 임의규정 B는 031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백과사전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031에 있던 영어로 된 미국



백과사전은 032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051, 081에도 있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특정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의 예 (일부)

주	제	Prefer	Options		
			A	B	C
	Specific languages	420~490	410	4L0	
	Literatures of specific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	810~890	810	8L0	
	General encyclopedias in a specific languages	031~039	03L	031	
	General organizations in a specific languages	051~059	05L	알파벳 순배열	051
	General collections in a specific languages	081~089	08L	081	

이와 같이 구체적이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은 DDC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 언어인 영어 이외의 언어를 강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기타 언어 (other languages)로 분류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④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거나 주제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하여 제시된다.<sup>22)</sup> 이 임의규정은 200 종교류의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특정 종교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 292-299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Option A : Class the religion in 230-280, its sources in 220,

22) Joan S. Mitchell,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9, No. 3/4(1995), p. 93.

comprehensive works in 200; in that case class the Bible and Christianity in 298

(Option B : Class in 210, and add to base number 2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10, Mahabharata 219.23; in that case class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in 200, its subdivisions 211-218 in 201-208, standard subdivisions of religion in 200.01-200.09

(Option C : Class in 291, and add to base number 29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at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91, Mahabharata 291.923; in that case comparative religion in 290 and its subdivisions 291.04 in 290.04, its subdivisions 291.1-291.9 in 290.01-290.09)

(Option D : Class in 298, which is permanently unassigned)

(Option E : Place first by use of a letter of other symbol, e. g., Hinduism 2H0 [preceding 220], or 29H (preceding 291 or 292); add to the base number thus derived, e. g., to 2H or to 29H,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Shivaism 2H5.13 or 29H.513)

그리고 910.1에서는 각 주제별로 지리서가 분류되는데, 이런 주제적인 지리서를 한 기호 아래에 함께 모을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다.

910.1 Topical geography

(Optional number; prefer specific subject, e. g., economic geography 330.91-330.99)

위의 임의규정을 이용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의 예 (일부)

주	제	Prefer	Options				
			A	B	C	D	E
Re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292-299	230-280	210	291	298	29L
Topical geography (예 : Economic geography)		330.91~99	910.1				

이와 같이 토픽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⑤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이외에도 다른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들이 있다. 780 음악(Music)에 있는 임의규정은 같은 기호 내에서 악보, 가사, 레코딩을 구별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제시된다.

780 Music

(Option : To distinguish scores, texts, recordings, u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 A : Prefix a letter or other symbol to the number for treatises, e. g., scores for violin M787.2 or 787.2, violin recordings R787.2 or MR787.2; use a special prefix to distinguish miniature scores from other scores, MM787.2

2) 형식에 의한 임의규정의 유형

형식에 따라 임의규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간략화 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③ 알파벳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④ 연대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sup>23)</sup>

① 문자를 사용하는 임의규정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분류표의 많은 곳에서 제시된다. 이 방법은 알파벳문자를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강조하려는 특색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자를 기호의 제일 처음에 두는 경우와 기호의 중간 또는 맨 끝에 두는 경우가 있다.

기호의 제일 처음에 알파벳문자를 두는 머릿글자(initial letter)는 800 문학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800s 전반에 걸쳐서 머릿글자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문학을 구별하는 임의규정이 제공된다. 860.1-868에서는 스페인어로 된 문학을 머

2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Vol. 1 N. Y., Forest Press, 1989, p. xlviii.

릿글자를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 > 860.1-868 Subdivisions of Spanish literatures  
 (Option : Distinguish spanish-language literatures of specific countries by initial letters, e.g., literature of Chile Ch860, of Colombia Co860, of Mexico M860 [or, of All American countries A860], of Spain S860; or class literatures not requiring local emphasis in 868.99. If literatures are identified by one of these methods, assign the following optional period numbers for literature of American countries. Other options are described under 810-890)

780에서는 머릿글자를 사용하여 악보와 레코딩을 구별하는 임의규정이 있다. 그리고 문자를 분류기호의 중간이나 끝에 두는 경우도 있다. 420-490에서는 분류기호의 가운데에 문자를 두어 각각의 언어를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하려는 주제를 배열(排列)순서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시켜서 강조하는 임의규정이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문자를 사용하는 임의규정의 예 (일부)

주 제	Prefer	Options	
		A	B
Distinguish Spanish-languages literatures of specific countries	860.1~868	L860	
Specific languages	420~490	410	4L0

② 간략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임의규정

간략화 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하려는 주제에 대하여 가장 짧은 기호를 배정하고,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배열되게 하는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061 북미의 일반조직(Gener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에서 미국 이외의 국

가의 일반조직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기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미국의 일반조직은 068.7에 분류하도록 한다.

061 Gener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Option B : To give local emphasis and a shorter number to organizations in a specific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lass them in this number; in that case class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in 068.7)

이와 유사하게 708.1에서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을 강조하기 위하여 708.1에 분류하도록 하고, 이 기호에 있던 북미는 708.97에 분류하도록 한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간략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임의규정의 예 (일부)

주 제	Prefer	Options	
		A	B
General organizations in a specific country	061~069	06L	061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a specific country	708.1~.9	708.L	708.1

③ 알파벳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하위구분을 더 상세하게 하는 대신에 지역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배열하기 위한 임의규정들이 제공되는데, 알파벳순 배열과 연대순 배열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Computer programming, programs, data)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게 하는 임의규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051-059 각 언어로 된 일반 연속간행물(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specific languages and languages families)에는

연속간행물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게 하는 임의규정에 제공된다.

005.262 In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s

Arrange alphabetically by name of programming language, e.g., C++

051-059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specific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

(Option : Arrange serial publications alphabetically under 050)

④ 연대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연대순 배열은 796.48 올림픽게임(Olympic games), 796.98 동계올림픽게임(Winter Olympic games)과 같이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쓰일 경우 임의규정으로 배열할 수 있게 한다.

796.48 Olympic games

Arrange specific games chronologically

.78 Winter Olympic games

Arrange specific games chronologically

### III.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 시안

이 절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국우위(local emphasis)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DDC 21판의 임의규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DDC에 있는 임의규정에서 자국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과 숫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서가배열이나 목록카드의 배열에서 구별이 어렵고,

개가제일 경우 도서관직원 외에 열람자도 책을 찾고 되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복잡한 배열법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DDC의 장점인 숫자만으로 구성된 단일분류기호의 단순성이 그 빛을 잃을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류표의 단순성과 배열상 편리를 위하여 숫자만을 사용한 임의규정을 이용하고, 아울러 -1 동아시아, -11 한국어, -12 중국어, -13 일본어와 같이 동양 3국을 함께 묶어서 전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 1. 보조표의 재전개 방안

DDC에 있는 7개의 보조표 중에서, Table 7 인물보조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보조표에 임의규정이 있다. 이 중에서도 자국우위와 관련된 임의규정이 있는 것은 Table 5 인종·민족·국가군 구분과 Table 6 국어구분이다.

### 1) Table 5 인종·민족·국가군 세구분표

Table 5에는 특정 인종·민족·국가군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2개의 임의규정이 있다.<sup>25)</sup> 한민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957에 있던 한민족이 -11에 올 수 있다. 이 임의규정이 선택되면, -1에는 동양 3국의 민족이 오게되고, 이 기호에 있던 북미의 민족은 -2에 통합된다.

- 1 East Asian
- 11 Korean
- 12 Chinese
- 13 Japanese
- 2 North American, British English Anglo-Saxons

24)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 (上)",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8호(1967), p. 13.

25) Table 5의 구체적인 임의규정의 내용은 II. 2. 1) 내용 또는 목적에 의한 임의규정 중 인종·민족·국가군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참조.

2) Table 6 국어구분

국어구분은 각국의 기호를 어학 이외의 다른 주제에 적용시켜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임의규정이 있다. 하나는 문자를 사용하여 강조할 언어(예 : Arabic language -A)를 -1앞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선적으로 강조할 언어를 -1에 분류하고, 이 기호에 있던 인도-유럽어(Indo-European languages)는 -91에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한국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두 번째의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957에 있던 한국어가 -11에 올 수 있다. 이 임의규정으로 -1에는 동양 3국의 언어가 오고, 이 기호에 있던 인도-유럽어는 -91 동인도-유럽 및 켈틱어(East Indo-European and Celtic languages)에 통합된다.

- 1 East Asian languages
- 11 Korean
- 12 Chinese
- 13 Japanese
- 2 English and Anglo-Saxon languages
- 91 Indo-European languages, East Indo-European and Celtic languages

이 기호를 400 언어류에 적용하면, 한국어를 411에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800 문학류에 적용해 보면, 811에 한국문학을 분류할 수 있다.

2. 주류별 재전개 방안

주류에서 500 자연과학 및 수학류에는 임의규정이 17판 이후 모두 삭제되었고, 600 기술과학류에서는 자국우위에 관한 임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500s와 600s를 제외하고 각 주류별로 시안을 전개해 보기로 한다.

1) 000 총류

총류에는 알파벳순 배열을 포함하여 40여개 정도의 임의규정이 있다. 총류에



는 다른 류에 비해 알파벳순 배열에 의한 임의규정이 가장 많다.

총류에 있는 임의규정 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자국우위를 제시한 임의규정으로, 016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030 일반백과사전(General encyclopedias)에서는 039.957에 있던 한국 백과사전을 임의규정 B를 이용하여 031.1에 재전개할 수 있다. 이 때 031에는 동양 3국의 백과사전이 오고 이 기호에 있던 미국백과사전은 032에 통합된다.<sup>26)</sup>

050 일반연속간행물(General serial publications)에서는 059.957에 있던 한국 연속간행물을 임의규정 C를 이용하여 051.1에 재전개할 수 있다. 이 때 051에는 동양 3국의 연속간행물이 오고, 이 기호에 있던 미국연속간행물은 032에 통합된다.

060 일반조직 및 박물관학(General organizations and museology)에서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여 068.519에 있던 한국일반조직을 061.1에 재전개할 수 있다. 이때 061에는 동양 3국의 일반 조직이 있고, 이 기호에 있던 북미는 062에 통합된다.<sup>27)</sup>

070 잡지 및 신문(Journalism and newspapers)에서는 임의규정 C를 이용하여 079.519에 있던 한국잡지와 신문을 071.1에 재전개할 수 있다. 이때, 071에는 동양 3국의 잡지와 신문이 오고, 이 기호에 있던 북아메리카는 072에 통합된다.

080 일반 전집(General collections)에서는 임의규정 C를 이용하여 089.957에 있던 한국의 일반전집을 081.1에 재전개할 수 있다. 이때 081에는 동양 3국의 일반전집이 오고, 이 기호에 있던 미국은 082에 통합된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000 총류의 임의규정 적용서안

주	제	Prefer	Option
General encyclopedias	in Korean	039.957	031.1
	in Chinese	039.951	031.2
	in Japanese	039.952	031.3

26) 030, 050, 080에 있는 임의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 2. 1) <표 2>를 참조.

27) 060, 070에 있는 임의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 2. 1) <표 1>을 참조.

주	제	Prefer	Option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Korean	059.957	051.1
	in Chinese	059.951	051.2
	in Japanese	059.952	051.3
General organizations	in Korea	068.519	061.1
	in China	068.51	051.2
	in Japan	068.52	051.3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Korea	079.519	071.1
	in China	079.51	071.2
	in Japan	079.52	071.3
General collections	in Korean	089.957	081.1
	in Chinese	089.951	081.2
	in Japanese	089.952	082.3

## 2) 100 철학 및 심리학류

철학류에 있는 임의규정 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181.1 극동남아시아(Far East and South Asia)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임의규정은 181.1에 우선적으로 강조할 특정나라의 철학을 분류하게 하고, 이 기호에 있던 극동남아시아의 철학은 181.9로 옮기도록 한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181.119에 있던 한국의 철학을 181.11에 분류할 수 있다. 임의규정 B가 선택되면 181.1에 있던 극동·남아시아 철학(Far East and South Asia philosophy)중 남아시아(South Asia)는 181.9로 옮겨진다.

181 Oriental philosophy

181.1 Far East Asia philosophy

.11 Korea

.12 China

.13 Japan

181.9 South Asia, philosophy of other areas of Orient

## 3) 200 종교류

200 종교류에는 30여개 정도의 임의규정과 70여개의 임의적 기호들이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분류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292-299에 5개가 제시되어 있다. 임의규정 A는 230~280에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분류하도록 하고, 임의규정 B는 210 한 기호에, 임의규정 C는 291에, 임의규정 D는 298에, 임의규정 E는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sup>28)</sup>

그런데 이 임의규정들은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교(國敎)가 있거나 국민의 대다수가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가진 외국과는 달리,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토착신앙 등 많은 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종교만을 강조하도록 제시된 임의규정을 이용하여 한국의 종교를 재전개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불교 관계 자료를 많이 가진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개시안만을 그 한 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5개의 임의규정 중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230~280의 기호를 할당하고 220에 그 종교의 경전을 두게 하는 임의규정 A를 이용하여 불교를 재전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220 불전(佛典)
- 230 불교교리
- 240 제불(諸佛), 보살(菩薩), 불제자(佛弟子)
- 250 법어(法語), 신앙록(信仰錄), 신앙생활
- 260 포교(布敎), 교육(敎育), 교화활동
- 270 법회(法會), 의식, 행사
- 280 사원론(寺院論), 교파(敎派)
- 290 기타 諸宗教
- 298 기독교 및 성경

230에서 280에서 불교의 전개는 KDC 4판에서 불교의 전개 순서를 참고하였

28) 200 종교류에 대한 임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I. 2. 1) <표 3>을 참조.

다.<sup>29)</sup> 그러나 KDC에서는 223에 불전(佛典)을 229에 라마교가 있는데, 임의규정에서 강조할 종교의 경전은 220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불전은 220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원론과 교파를 한 기호에 두고 라마교는 제외하였다. 이때 기독교와 성경은 298에 분류하였다.

이상의 예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관계 자료만을 특정 종교의 자료에 비해 많이 소장한 도서관에 적용한 경우의 한 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가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DDC에 새로운 임의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300 사회과학류

300 사회과학류에는 35개의 임의규정과 17개의 임의적 기호가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들은 Table 2의 기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기호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배열하여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한다.

즉 지역구분표에서 두 국가와 관련된 자료를 분류할 때, 그 순서는 저작의 중점도가 큰 국가의 기호가 먼저 나오게 되고, 만약 그 중점도가 같다면 보조표에서 먼저 나타나는 국가의 기호를 먼저 적용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저작의 중점도나 보조표에 나타나는 순서에 관계없이 한국의 기호를 먼저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한국의 국제관계를 분류할 때, 보조표에서 프랑스의 기호는 -44이고 한국의 기호는 -519이다. 그러면 국제관계의 기호가 327이므로, 분류 기호를 구성하면 327.440519가 된다. 이때 0은 주기에서 두 국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추가하도록 지시된 패싯지시기호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한국의 기호가 앞에 배열되어 327.519044가 되어 327 국제관계 내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의 국제관계는 한국의 기호로 모아져서 분류될 수 있다.

29)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韓國十進分類法, 4판, 제1권 본표, 서울: 동협회, 1996, pp. 125-170.

이런 임의규정은 303.4821-4829, 337.3-9, 341.0266, 341.0268, 378.4-9, 382.091, 382.093-099, 382.93-99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이 임의규정들에 의하여 한국을 재전개해 보는데, 구체적인 기호를 결과로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과 관련된 국가로 프랑스를 예로 들어 나타내 보면 <표 7>과 같다. 382.091 일반지역, 지방, 장소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commerce of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은 국가가 아닌 일반지역이므로, 한국과 관계된 지역으로 프랑스 대신 Table 2에서 -1724 개발도상국을 예로 들어보았다.

<표 7> 300 사회과학류의 임의규정 적용 시안

주	제	Prefer	Option
Culture exchange between Korea and France		303.482440519	303.482519044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327.440519	327.519044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337.440519	337.519044
Treaties between in Korea and France		341.0266440519	341.0266519044
Cases involving Korea and France		341.0268440519	341.0268519044
Trade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nations		382.0917240519	382.0951901724
Trade between Korea and France		382.09440519	382.09519044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France		382.9440519	382.9519044

### 5) 400 언어류

400 언어류에는 4개의 임의규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어를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410에 있는 임의규정이 있다.<sup>30)</sup> 임의규정 A를 이용하면, 495.7에 있던 한국어가 411에 재전개될 수 있다. 이때 410~419에 있던 언어학은 400으로 옮겨진다.

30) 400 언어류에 대한 임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I. 2. 1) <표 2>를 참조.

400 Linguistics

410 East Asian languages

411 Korean

412 Chinese

413 Japanese

420 English and Old English(Anglo-Saxon)

**6) 700 예술류**

700 예술류에는 90여개 정도의 임의규정과 임의적 기호들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임의규정은 708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fine and decorative arts)과 750 회화(Painting and paintings)에 있는 임의규정이다.

708.1-.9에 있는 임의규정 A는 각 국가의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들을 문자를 써서 708.1앞에 두게 한다(예 :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in Japan 708.J). 임의규정 B는 708.1에 우선적으로 강조할 국가를 두고 이 기호에 있던 북아메리카는 708.97로 옮겨두게 한다. 2개의 임의규정 중 숫자만을 이용한 것인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708.9519에 있던 한국의 회화와 장식예술에서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이 708.11에 재전개 될 수 있다. 임의규정 B가 선택되면 708.1에 있던 북미지역은 708.97에 옮겨지게 된다.

708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fine and decorative arts

708.1 East Asia

.11 Korea

.12 China

.13 Japan

708.2 British Isles England

708.97 North America

750 회화에서 759.1-.9에 있는 임의규정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의규정 A

는 특정 국가의 회화에 대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759.1앞에 두게 한다(예 : Burmese painting and paintings 759.B). 임의규정 B는 우선적으로 강조할 국가를 759.1에 두고 이 기호에 있던 북미지역은 759.97로 옮겨두게 한다. 이 중에서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759.9519에 있던 한국화를 759.1-9에 있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면 759.1에 동양 3국의 회화를 두고 759.11에 한국화를 재전개 할 수 있다. 이때 759.1에 있던 북아메리카 지역은 759.97로 옮겨진다.

- 750 Painting and paintings
- 75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 759.1 East Asia
  - .11 Korea
  - .12 China
  - .13 Japan
- 759.2 British Isles England
- 759.97 North America

## 7) 800 문학류

800 문학류에는 40여개의 임의규정과 50여개의 임의적 기호가 있다. 이 중에서 한국문학을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810-890에 있는 임의규정이다.<sup>31)</sup> A, B 두 개의 임의규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숫자만을 사용하는 임의규정 A를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임의규정 A를 이용하면, 895.7에 있던 한국 문학은 811에 재전개 할 수 있다. 810에는 동양 3국의 문학이 오고, 이때 810에 있던 미국문학은 820에 있는 영국 문학에 통합된다.

- 810 East Asian literatures
- 811 Korean
- 812 Chinese

---

31) 800 문학에 대한 임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I. 2. 1) <표 2>를 참조.

813 Japanese

820 American, English and Old English (Anglo-Saxon)

#### 8) 900 지리 및 역사류

900 지리 및 역사류에는 130여개의 임의규정과 140여개의 임의적 기호들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을 강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909.04 민족, 인종, 국가군의 역사(History with respect to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에 있는 임의규정이다.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909.004957에 있던 한민족의 역사를 909.0411에 재전개 할 수 있다. 여기에 -11의 기호는 Table 5의 임의규정을 이용하여 한민족을 재전개한 기호이다.

909.04 History with respect to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909.0411 Korean

.0412 Chinese

.0413 Japanese

DDC는 현대 국가의 역사를 분류하도록 940에서 990의 기호를 배정하고 있다. 이 기호 중에서 한국의 역사는 951.9에 배정되어 있다. 이 기호는 951 중국 및 고대지역(China and adjacent areas)에서 다시 세구분된 기호로, 우리 나라에서 이 기호를 이용하여 한국사를 분류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DDC에는 각 국가의 역사부분을 재전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새로운 임의규정의 도입이 요망된다.

## IV. 결 론

본고에서는 DDC에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



조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임의규정(options)의 유형에 대해 분석해보고, 최신판인 21판의 임의규정을 이용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전개 시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의규정은 표준기호법에서 우선적인 처리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각국의 도서관에서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의규정의 유형은 내용 또는 목적에 의한 유형과 형식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또는 목적에 따른 유형은 각각 ① 관할구역, ② 인종·민족·국가군, ③ 언어, ④ 토피, ⑤ 그 밖의 특색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에 따른 유형은 각각 ① 문자, ② 간략화된 기호, ③ 알파벳순 배열, ④ 연대순 배열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을 위한 임의규정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여러 종류의 임의규정 중 문자를 사용할 경우 서가배열이나 목록카드의 배열에서 구별이 어렵고 복잡하므로, DDC의 장점인 단일기호의 단순성을 살릴 수 있는 숫자만을 사용한 임의규정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동양 3국(한·중·일)을 하나로 묶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처리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② 보조표에서는 Table 5와 Table 6에서는 동양 3국을 하나로 묶어 -1의 기호를 부여하고, -957에 있던 한국을 -11, 중국을 -12, 일본을 -13에 두도록 하였다.

③ 000 총류에서는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있는 030에서는 임의규정 B를, 050에서는 임의규정 C를, 060에서는 임의규정 B를, 070과 080에서는 임의규정 C를 이용하여, 각각 031.1, 051.1, 061.1, 071.1, 081.1의 기호에 한국관련 항목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④ 100 철학 및 심리학류에서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여 181.11에 한국의 철학을 두도록 하였다.

⑤ 200 종교류의 기존 임의규정은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강조하도록 한 것으로, 다양한 종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여러 종교를 대등하게 다룰 수 있는 임의규정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임의규정 A를 이용하여 불교관련자료가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개 시안을 제시해 보았다.

⑥ 300 사회과학류에서는 303.4821-4829, 337.3-9, 327.3-9, 341.0266, 341.0268, 378.4-9, 382.091, 382.093-.099, 382.93-.99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하여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다른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⑦ 400 언어류에서는 410에 있는 임의규정 A를 이용하여 449.57에 있던 한국어를 411에 두도록 하였다.

⑧ 700 예술류에서는 708.1-9와 759.1-9에 있는 임의규정 B를 이용하여 708.9519에 있던 한국의 미술관, 박물관, 개인 소장품을 708.11에 그리고 759.9519에 있던 한국회화를 759.11에 두도록 하였다.

⑨ 800 문학류에서는 810-890에 있는 임의규정 A를 이용하여 895.7에 있던 한국문학을 811에 두도록 하였다.

⑩ 900 지리 및 역사류에서는 909.04에 있는 임의규정을 이용하여 909.004957에 있던 한민족의 역사를 909.0411에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900 지리 및 역사류에는 자국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임의규정이 DDC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DDC의 임의규정이 DDC의 구미(歐美)중심성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서관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종교류(200)와 역사류(900)에서 그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야의 문제가 한국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많은 도서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DDC의 임의규정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권고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1986.
- 김승환.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논문집**(강남대) 제16권(1986). pp. 599-621.
- 김연경 편역. **제21판 Dewey 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세분법**. 서울, 금문서적, 1997.
- 김진우. "분류표에 설정된 분류주기의 제유형." **도서관**, 제15권, 제4호(1990). pp. 37-57.
- 김태수. "듀이십진분류법." **도협월보**, 제18권, 제5호(1977). pp. 28-30.
- 남태우. "한국에서의 DDC어문학 분류표의 전개고." **문헌정보학보**(전남대) 제5집(1992). pp. 15-37.
- .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pp. 85-104.
- 오동근. "DDC의 새로운 이해(I)." **도서관문화**, 제39권, 제1호(1998.1·2). pp. 54-74.
- . "DDC의 새로운 이해(II) : 일반적 성격과 구조." **도서관문화**, 제39권, 제2호(1998.3·4). pp. 46-59.
- . "DDC의 새로운 이해(III) : 분류작업의 실제."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5·6). pp. 35-47.
- 이병수. "듀이십진분류법의 표목과 주의 제형태에 대하여(1)." **도서관**, 제35권, 제8호(1980). pp. 5-9.
- 이세원.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발전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 :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상)."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7호(1967). pp. 5-14.
- 최윤숙.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부문 전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공저.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Chan, Lois Mai,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 Gorman, Mitchell. "The longer the number, the smaller the spine; or, up and down with Melvil and Elsie." *American Libraries* Vol. 12, No. 8 (1981). pp. 498-499.
- Mitchell, Joan S.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9, No. 3/4(1995). pp. 89-103.
- Osborn, Jeanr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9th ed : A Study Manual*.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92.
-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 : A Study Manual, rev.*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91.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 2vols. (rev.) N.Y., Forest Press, 1965.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3vols. N.Y., Forest Press, 1971.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4vols. N.Y., Forest Press, 1989.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4vols. N.Y., Forest Press, 1996.

## Application of the Options of DDC 21 for Korean Libraries

Oh, Dong-Geun \* · Yeo, Ji-Suk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options of DDC 21 and suggests a tentative plan to apply them in Korean libraries.

The types of options can be categorized by contents or objectives and forms. By contents they can be divided into five kinds : 1) those for giving emphasis on jurisdiction, 2) those on racial, ethnic, national group, 3) those on language, 4) those on topic, 5) and those on other characteristics. By forms, four kinds : 1) those using letter, 2) those using shorter number, 3) those using alphabetical arrangement, 4) those using chronological arrangement.

Tentative plan for Korean libraries using options in DDC 21 use numbers only to take full advantage of simplicity of it from maintaining pure notation and to make arrangement easier. The pla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In Table 5 and Table 6, subjects related to 3 countries in the 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re tied together and given number -1, and those to Korea is replaced into -11 from -957.

② In 000 Generalities, subject related to Korea is replaced into 031.1, 051.1, 061.1, 071.1, 081.1 using option B in 030 which has options for local emphasis, option C in 050, Option B in 060, Option C in 070 and 080.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Lecture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③ In 100 Philosophy, paranormal phenomena, psychology, Korean philosophy is replaced into 181.11 using Option B.
- ④ In 200 Religion, it is hard to apply the options of DDC 21 into Korean situation various religions treated equally, because the options in DDC 21 are to emphasize one kind of religion. Instead, in this plan, we are presented an example for in many libraries holding Buddhism collections, using Option A.
- ⑤ In 300 Social sciences, subjects related to Korea are replaced into appropriate numbers giving priority to Korea, using options in 303.4821-4829, 337.3-9, 323.3-9, 341.0226, 341.0268, 378.4-9, 382.091, 382.093-099, 382.93-99.
- ⑥ In 400 Languages, Korean is replaced in 411 from 449.57 using Option A in 410.
- ⑦ In 700 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 Galleries, museums, private collections of fine and decorative arts of Korea is replaced into 708.11 from 708.9519 using Option B in 708.1-9. And Painting and Paintings of Korea is replaced into 759.11 from 759.9519 using Option B in 759.1-9.
- ⑧ In 800 Literature and rhetoric, Korean literature is replaced into 811 from 895.7 using Option A.
- ⑨ In 900 Geography, history and auxiliary disciplines, history of ethnic is replaced into 909.00411 from 909.004957 using Options in 909.04.

From the abov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DDC should introduce some options to reflect appropriately the Korean situations, especially in the Religion and in the History.